

대구지하철 참사를 바라보며

My Opinion on Tragic Subway Accident in Daegu

이광만 / (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g-Man

많은 인명피해로 언론매체들을 떠들썩하게 하던 대구지하철 참사가 어느덧 3개월이 되어간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잊혀진지 오래인 듯 하다.

우리는 과거 여러 해 동안 씨랜드화재, 인천호프집 화재, 천안 축구부 화재 등 크고 작은 화재사건들에 많은 인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 근본(根本)은 우리가 만들어 냈으며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채 우리 건축사들은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아닌 화재에 관해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TV나 신문지상의 논평을 통해 잘못을 질책하고 있다.

참사 이후 신문기사 중 '멀티플렉스 영화관 화재 때 탈출구가 없다' 라는 기사에 묵묵히 동감한 적이 있다. 도심상가건물 8층에 위치한 A멀티플렉스.

밤 11시쯤 영화가 끝난 뒤 200여명의 관객들이 극장을 빠져나오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출구는 폭 2m도 안 되는 조그만 문 하나 뿐... 줄의 맨 끝단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나오는데까지 또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한참을 기다린다. 계단은 출입금지라는 프린트물 하나로 굳게 잠겨 있다.

최대 78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 극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밖으로 연결되는 3곳의 비상계단이 모두 셔터로 잠겨 있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모두 고립되는 공간이다. 화재 시 대규모 참사를 기다리며 영업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극장연합회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멀티플렉스 극장은 전국에 59개, 주말이면 2~3만명의 관객이 찾는다고 한다. 대부분이 대규모 참사에 노출된 것을 모른 채 영화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하버드대 대학원 학생 및 교수들이 한국을 찾은 적이 있다. 이들은 영화관의 기능이 복층 혹은 다층구조로 되어있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또한 주유소 등의 위험물 저장시설 위에 주거, 업무 등의 복합기능을 갖는 건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최근 준공된 쌍둥이 빌딩의 주상복합 건물은 당당한 외관과 48층의 높이로 강변의 랜드마크(Landmark)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은 내부에 우리(건축사)들이 만들어 낸 문제를 안고 있는 건물이다. 48층에 비상계단이 하나뿐인...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만들지 않아야 할 당사자인 설계자가 건교부에 질의회신을 통해 합법적으로 얻어낸 결과이며, 이로 인해 최대의 전용률을 만들어 냈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다. 과연 경제논리의 노예가 되어 사람들의 목숨을 경제논리와 바꾸려는 행위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물어보고 싶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필자와 이 글을 읽는 바로 우리 건축사들의 자화상이다.

우리(건축사들)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개의 계획안들을 사람들의 안전을 뒤로한 채 법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 심지어는 힘의 논리(인맥)까지 동원하여 허가 및 심의를 통과시키려고 발벗고 뛰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시대의 최대 히트상품이라고 하는 공동주택,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판상형 아파트를 생각해보자.

이 판상형 아파트 한세대는 건축법에서 최소 1개의 피난계단만을 요구하고 있다. 화재 시 2방향 탈출구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발코니, 측세대와 연결된 2방향피난을 유도하고 있지만, 발코니에 설치된 새시(최근엔 외장재가 고급화되어 유리 커튼월로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다), 피난이 가능하게 되어야 할 가변축벽에 위치한 창고 등으로 인해 현관부분 화재 시 자력에 의한 피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소극적 방안으로 완강기 설치가 대안일 수 있지만 구조적 대안은 아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우리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남의 탓인 양 '경제의 논리 때문에' 라고 하거나 '사람들이 아직 안전에 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라고 핑계를 대고 만다.

정작 잘못된 문제를 고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볼멘소리로 우는 아이처럼 말이다.

과연 이대로 팔짱을 낀 채 남의 집 불보듯 바라만 보아야 하는 것일까?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만들어내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우리 건축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조금씩이라도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고, 그것들을 통해 사람들의 사고를 변화시키며, 잘못된 정책을 바꾸어 가야 한다.

우리 건축사들은 건축물을 설계할 때 구조, 안전, 피난에 관한 최소한의 법 규정에 맞추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법의 규정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필요사항(기본골격)만을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 건물의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한 살을 붙여 계획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방재 전문가 및 소방 관계자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천편일률적으로 규정된 정책(안전에 관한 건축법규)의 변화를 꾀하여야 한다.

「외국의 법규가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 건물전체의 수용인원이 500명이하인 경우 2개, 500~1000명인 경우 3개, 1000명 이상인 경우 4개 이상의 피난 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수용인원 220명과 비상구의 폭 1,050mm를 기준으로 1명씩 늘어날 때마다 5mm씩 비상구의 폭을 넓히도록 하고 있다. 건물면적만을 기준으로 마련한 우리와 달리 면적과 별도로 수용인원에 따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종래 일본의 피난계단, 계단폭을 수용인원과 면적, 층수 비례로 규정한 건축법규를 한국적인 현실, 즉 경제의 논리에 밀려 획일화된 계단 폭, 피난 계단의 수, 피난 거리 등으로 통일되고 대폭 완화되었다.」

우리 건축사들은 사람들의 삶을 만드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다른 직업인들과는 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우리의 임무를 스스로 저버려서 한순간에 수많은 인명을 해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올바른 사고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우리(건축사)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ps. 우리가 빛은 수많은 참사로 사라져간 분들의 유족들에게 가해자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